

맞춤형 고용정책을 통해 50대의 ‘내일 찾기’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4.10.(목), 매일경제 “55세면 짐싸는데... 고용시장서 소외된 50대”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지난 '25.2월 「중장년 내일 찾기 지원 방안」을 발표하여 50대의 특징과 선호를 고려한 일자리 발굴부터 훈련, 취업 알선 등의 ‘내일 찾기’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음
- 우선 조기 퇴직한 50대의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해 유망자격형, 경력 전환형, 경력이음형 등 유형별 일자리를 3년간 15만 개를 발굴할 계획이며
 - 특히, 중장년이 퇴직 후 자격을 취득하거나 훈련을 이수해도 경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 「중장년 경력지원사업」을 도입, 시범 운영 중임
- 앞으로도 50대 조기 퇴직자, 폐업 자영업자 등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정책을 계속 확대하겠음
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	책임자	과 장	최영범 (044-202-7454)
	고령사회인력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최다숨 (044-202-7514)